

# 현안과 과제

■ 투자 여건 개선으로 투자 확대 유도  
- 가장 큰 경영 위협 요인은 '내수 부진'

## &lt; 요약 &gt;

## ■ 도입

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.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.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(2001~2007년) 4.9%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3년) 3.2%로 하락했다. 지출 부문 중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2001~2007년) 1.34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3년) 0.30%p로 하락했다.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보다 컸다.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58%p로 금융위기 이전(3.25%p) 대비 1.67%p 하락했다. 한편,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5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81%p)했다.

## ■ 2014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

**(2014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 여건)**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'중국 경기 둔화',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리스크는 '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지속'과 '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'을 지적하고 있다.

**(2014년 하반기 경제 전망)**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고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80%가 넘는 기업이 응답했다.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.5%를 차지했다.

**(정부 정책 성과 및 방향)**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'신속한 재정 확대'와 '공공기관 정상화'를 꼽았다. 하반기에는 '내수 부양'과 '투자 활성화'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.

**(경영 성과와 전망)** 매출과 이익 등 상반기 경영성과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50%를 넘었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70%를 차지했다. 하반기 기업의 자금 사정은 '상반기와 비슷한 수준'으로 응답한 기업이 80%에 근접했고 내수시장 규모는 '확대될 것'으로 응답한 기업이 50%를 상회했다.

**(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)**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설비와 R&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'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늘리겠다'고 응답한 기업이 89%에 근접했다. 영업이익 목표는 '상반기와 동일 수준이거나 상향 조정'하겠다는 기업은 84%에 근접했다. 또한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'수익성 향상'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.4%를 차지했다.

**(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)** 하반기 원/달러 환율 '1,001~1,100', 엔/달러 환율 '100~110엔 미만'으로 전망한 기업이 70% 내외를 차지했다.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이 1,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.6%에 달했다.

**(투자 지수 평가)**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.1으로 6개월 전 114.3 대비 하락했다. 세부 지수별로 보면, 투자 실적을 나타내는 투자 추세는 6개월 전 수치 대비 하락하였으나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투자 심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.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.7로 6개월 전 98.4 대비 24.7p 하락했으나 투자심리지수는 160.1로 6개월 전 161.0 대비 소폭 하락했다. 투자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성과지수도 137.5로 6개월 전 143.5 대비 6.0p 하락했으나 기업의 기업가정신은 107.0으로 6개월 전 101.7 대비 5.3p 상승했다. 한편,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.1로 6개월 전 66.9보다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.

## ■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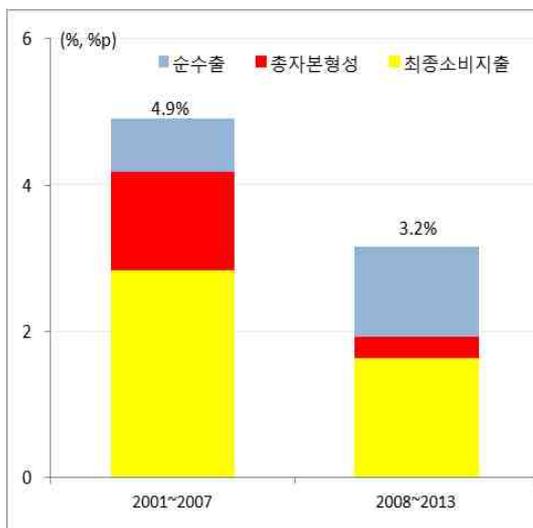
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와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,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. 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. 셋째,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.

## 1. 투자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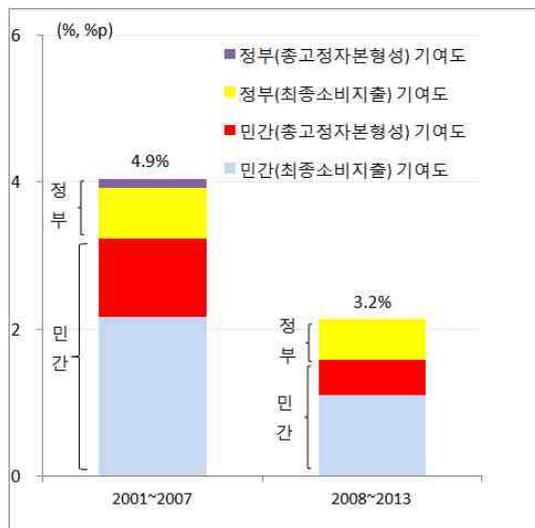
### ○ 금융위기 이후 투자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

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.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
  -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.9%(기간 중 평균)에서 금융위기 이후 3.2%(기간 중 평균)로 하락함
  - 지출 부문별로 보면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상승했으나 최종소비지출의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2001~2007년) 평균 2.84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년~2013년) 1.63%p로 하락
  -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(2001~2007년) 1.34%p에서 금융위기 이후(2008~2013년) 0.30%p로 하락
- 특히,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 보다 컸음
 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 경제 성장 기여도는 1.58%p로 금융위기 이전(3.25%p) 대비 1.67%p 하락
  - 정부 부문(최종소비지출+총고정자본형성)의 성장 기여도는 0.55%p로 하락(금융위기 이전 0.81%p)

### < GDP 성장률 및 지출부문 기여도 추이 > < 투자와 소비의 공공/민간 경제 성장 기여도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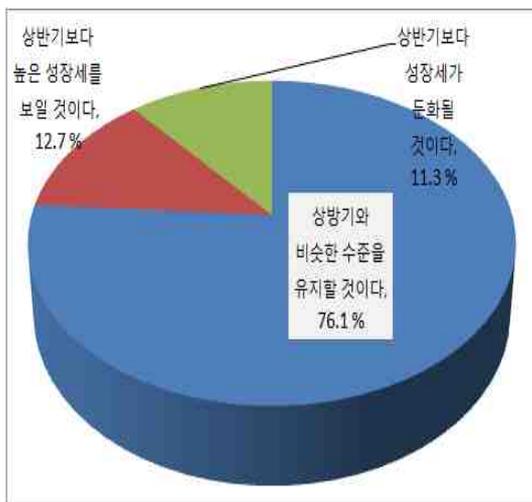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.

## 2. 2014년 하반기 기업 경영 전망

### 1) 국내외 경제 전망

- (국외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세계 경제가 상반기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고, '중국 경기 둔화' 및 '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'를 세계 경제 회복의 불안요인으로 지적
  - 하반기 세계 경제 : 국내 다수의 기업들은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    -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'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76.1%를 차지했고, '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'라는 응답은 12.7%를 기록
    - 한편, '상반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'라는 응답은 11.3%를 차지하여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불안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
  - 세계 경제 불안 요인 : '중국 경기 둔화와'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'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, '미국 금리정상화와'중동지역 리스크 고조'가 다음으로 큰 응답 비중을 나타냈음
    - '중국 경기 둔화'를 세계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지적한 기업은 31.9%의 비중을 차지하여, 국내 기업들이 하반기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    - 한편, '엔저와 환율 불안 고조'는 전체 설문 응답의 21.5%를 차지하여, 많은 기업들이 하반기 엔저 현상의 지속과 환율 불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  - '미국 금리정상화'와 '중동지역 리스크 고조'도 각각 전체 응답 기업의 14.1%가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여 미국의 본격적 출구전략 시기 및 중동발 리스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음

< 2014년 하반기 세계 경제 성장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4년 하반기 대외 불안 요인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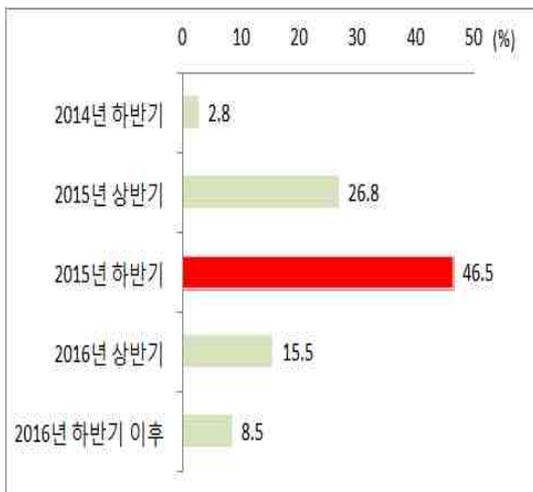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주: 복수 응답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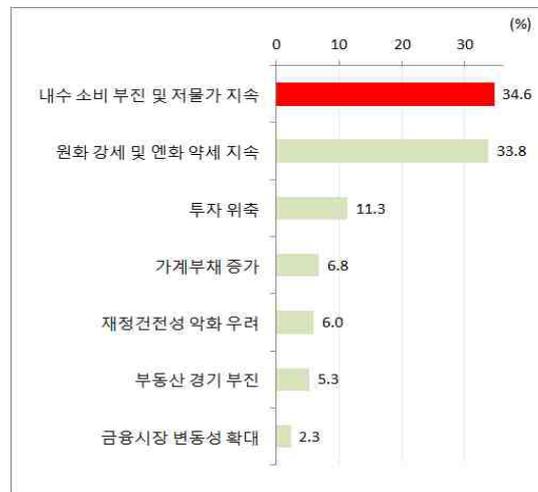
- (국내 경제 전반)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국내 경제가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본격적인 회복세는 2015년 하반기 이후로 응답. 가장 큰 불안 요인은 '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'을 지적
  - 하반기 국내 경제 : 하반기 한국 경제가 '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패치 현상'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가장 많은 84.5%를 차지
    - 국내 경제의 성장이 하반기에 침체국면(더블딥)으로 진입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4.1%였고, '고성장 단계로 진입'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.4%에 불과
  - 본격적 경기 회복 시기 :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시점에 대해서 전체 응답 기업 중 46.5%의 기업이 '2015년 하반기'라고 응답하였음
    - '2014년 하반기'로 응답한 기업은 2.8%, '2015년 상반기' 26.8%, '2016년 상반기'는 15.5%, '2016년 하반기 이후' 8.5%로 나타나,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대체로 1~2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
  - 경영 위협 요인 : 대부분의 기업들은 하반기에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을 줄 위협 요인으로 '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(34.6%)'과 '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(33.8%)'을 지적했음
    - '투자 위축'은 11.3%를 차지했으며, '가계부채 증가' 6.8%, '재정건전성 악화 우려' 6.0%, '부동산 경기 부진' 5.3% '금융시장 변동성 확대' 2.3%의 순으로 나타남

< 국내 경제의 본격적 회복 시기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4년 하반기 경영 위협 요인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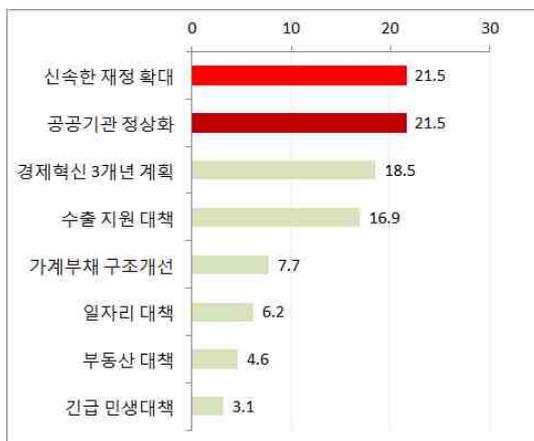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  
주: 복수 응답 기준.

## 2) 국내 경제 이슈

○ (정부 정책) 기업들은 상반기에 정부가 취한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은 '신속한 재정 확대'와 '공공기관 정상화'를 우선순위로 꼽았고, 하반기에는 '내수 부양'과 '투자 활성화'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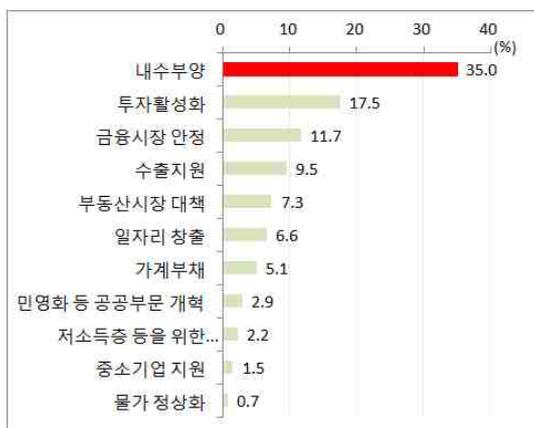
- 상반기 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'신속한 재정 확대'와 '공공기관 정상화'가 각각 21.5%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
· 다음으로는 '경제혁신 3개년 계획' 18.5%, '수출 지원 대책' 16.9%, '가계부채 구조개선' 7.7%, '일자리 대책' 6.2%, '부동산 대책' 4.6%, '긴급 민생대책' 3.1%의 순으로 나타남
- 하반기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'내수 부양(35.0%)'과 '투자 활성화(17.5%)'가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차지  
· 이외에 '금융시장 안정' 11.7%, '수출 지원' 9.5%, '부동산 대책' 7.3%, '일자리 창출' 6.6%, '가계 부채' 5.1%, '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' 2.9%, '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 확대/규제 개혁' 2.2%, '중소기업 지원' 1.5%, '물가 정상화' 0.7%의 순으로 응답

< 가장 잘한 상반기 정부 정책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201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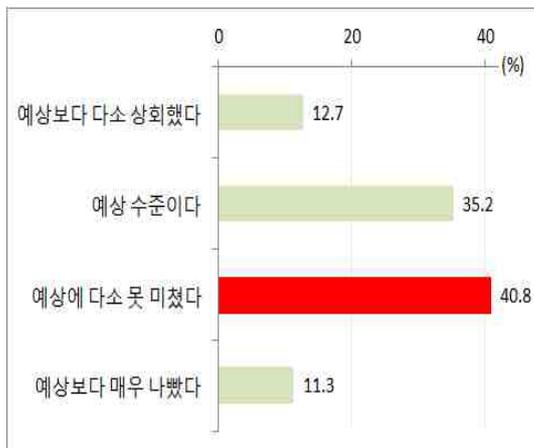
주: 복수 응답 기준.

### 3) 하반기 경영 예측

○ (상반기 경영 성과와 하반기 매출 전망) 매출, 이익 등 상반기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부진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하반기 매출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는 응답이 더 많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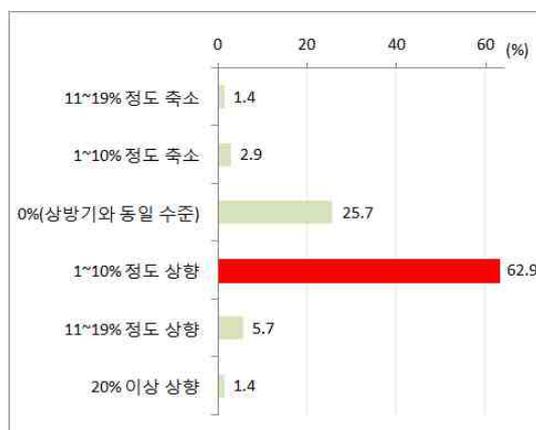
- '예상보다 다소 못 미쳤다'라는 응답은 40.8%, '예상보다 다소 상회했다'라는 응답은 12.7%, '예상 수준이다'는 응답은 35.2%, '예상보다 매우 나빴다'는 응답은 11.3%를 차지
-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왔다고 응답한 기업(12.7%)이 제시한 이유는 '비용 절감'과 '수출 호조'가 각각 33.3%로 가장 큰 이유였음. '내수 호조' 22.2%, '환율, 금리 효과' 11.1%로 응답
- 하반기 매출 목표를 상반기 대비 '1~10% 정도 상향'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의 62.9%를 차지
  - '상반기와 동일한 수준'으로 응답한 기업은 25.7%, '11~19% 정도 상향' 5.7%, '20% 이상 상향'하겠다는 기업은 1.4%로 나타남
  - 한편, 하반기 매출 목표를 '1~10% 정도 축소'로 응답한 기업 비중이 2.9%, '11~19% 정도 축소'로 응답한 기업 비중은 1.4%를 차지

< 상반기 경영 성과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하반기 매출 목표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○ (환율 및 손익분기점 환율 전망) 전체 응답 중 70% 내외의 기업들이 하반기 원/달러 환율 '1,001~1,100원', 엔/달러 환율 '100~110엔 미만'으로 전망.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은 40% 내외 기업이 1,050원 이상으로 응답

- 원/달러 환율 : 한편 '901~1,000원'으로 전망한 기업은 15.7%, '1,101~1,200원'을 전망한 기업은 4.3%, '1,201~1,300'을 응답한 기업은 1.4%를 차지
- 2014년 1월~6월 30일 기간 중 원/달러 환율(일일 종가기준)은 1,049.4원임

| 원/달러 환율 | 901~1,000원 | 1,001~1,100원 | 1,101~1,200원 | 1,201~1,300원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비중(%)   | 15.7       | 78.6         | 13.6         | 1.4          |

- 엔/달러 환율 : 하반기 엔/달러 환율은 전체 응답 기업 중 68.6%의 기업이 '100~110엔 미만'으로 전망
- '90~100엔 미만'으로 전망한 기업은 30.0%, '110~120엔 미만'은 1.4%를 차지
- 2014년 1월~6월 30일 기간 중 엔/달러 환율(일일 평균기준)은 102.5엔임

| 엔/달러 환율 | 90~100엔 미만 | 100~110엔 미만 | 110~120엔 미만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비중(%)   | 30.0       | 68.6        | 1.4         |

- 손익분기점 환율 :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 수준에 대해서 36.5%의 기업이 1,000원 수준으로 응답
- 9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전체 응답 중 17.5%, 900원은 7.9%를 차지
- 한편 1,050원으로 응답한 기업은 27.0%, 1,100원 11.1%를 기록.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을 1,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이 38.1%를 차지

|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 | 900원 | 950원 | 1,000원 | 1,050원 | 1,100원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비중(%)         | 7.9  | 17.5 | 36.5   | 27.0   | 11.1   |

○ (하반기 자금 및 내수 시장) 하반기 업체의 자금 사정은 '상반기와 비슷한 수준'으로 내수시장 규모는 '확대 될 것'으로 예상

- 하반기 업체의 자금사정은 '상반기와 비슷할 것'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8.9%로 가장 비중이 컸음
  - 하반기 자금 사정이 '다소 악화될 것 같다'고 보는 기업은 7.0%를 기록
  - 한편, '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이다'라고 응답한 기업은 14.1%를 차지
- 하반기에 각 업체가 속한 내수시장 규모에 대해서 '1%~10% 확대'될 것이라는 응답이 51.4%로 가장 많았음
  - 반면 '상반기와 동일 수준'이라고 보는 기업이 22.9%, '1%~10%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21.4%, '11%~19% 축소'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1.4%를 차지
  - '11%~19% 확대'와 '20%이상 확대'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.4%를 차지
- **회사채 금리** : 하반기에 3년 만기 회사채 AA- 금리에 대해서는 88.7%의 기업이 '3~4% 미만'이 될 것으로 전망
  - '2~3%미만'으로 전망한 기업은 11.3%를 차지
  - 2014년 1월~6월 30일 기간 중 회사채 AA- 금리(일일 평균)는 3.27%임

< 하반기 자금사정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하반기 내수시장 규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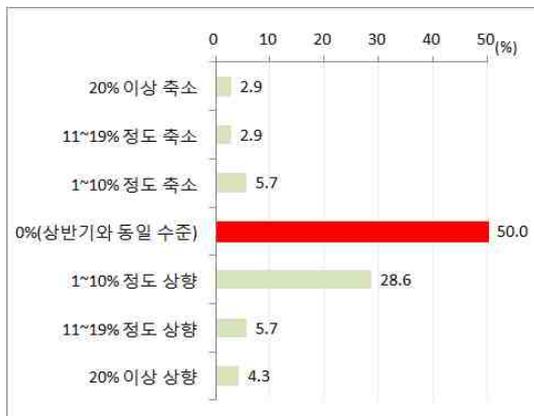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주: 복수 응답 기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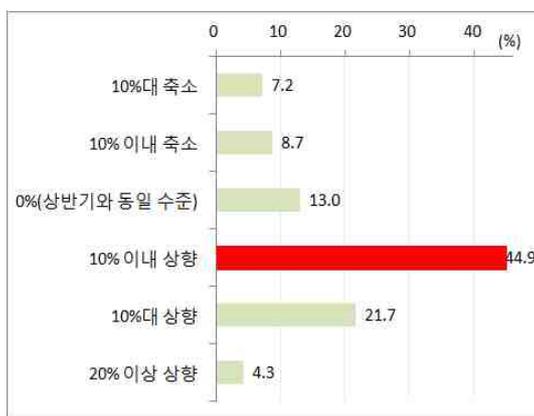
- (하반기 투자 및 영업 목표)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전체 투자규모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, 영업이익은 10% 이내에서 상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. 또한 수익성 향상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응답
  - 하반기에 설비와 R&D를 포함한 전체 투자 규모는 ‘상반기 수준이 될 것’으로 응답한 기업이 50.0%로 가장 큰 비중
    - 하반기 투자 규모를 상반기 대비 ‘1~10% 정도 상향’하겠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8.6%, ‘11~19% 정도 상향’ 5.7%, ‘20% 상향’ 4.3% 차지
    - 한편, ‘1~10% 정도 축소’하겠다는 기업은 5.7%, ‘11~19% 정도 축소’하겠다는 기업은 2.9%, ‘20%이상 축소’하겠다는 기업은 2.9%를 차지
  -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역시 ‘10% 이내에서 상향할 것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4.9%로 가장 많았음
    - ‘10%대 상향’으로 응답한 기업은 21.7%, ‘20%이상 상향’으로 응답한 기업은 4.3%를 차지. ‘2013년 수준을 유지’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3.0% 차지
    - 반면 ‘10% 이내로 축소’로 응답한 기업은 8.7%, ‘10%대 축소’는 7.2%를 차지
  - 하반기 기업 활동의 우선 순위는 ‘수익성 향상’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3.4%로 가장 많았음
    - ‘비상경경제체 유지’로 응답한 기업은 18.3%, ‘매출 증대’ 16.9%, ‘투자 증가’ 1.4% 순으로 응답

< 하반기 투자 규모 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< 하반기 영업이익 목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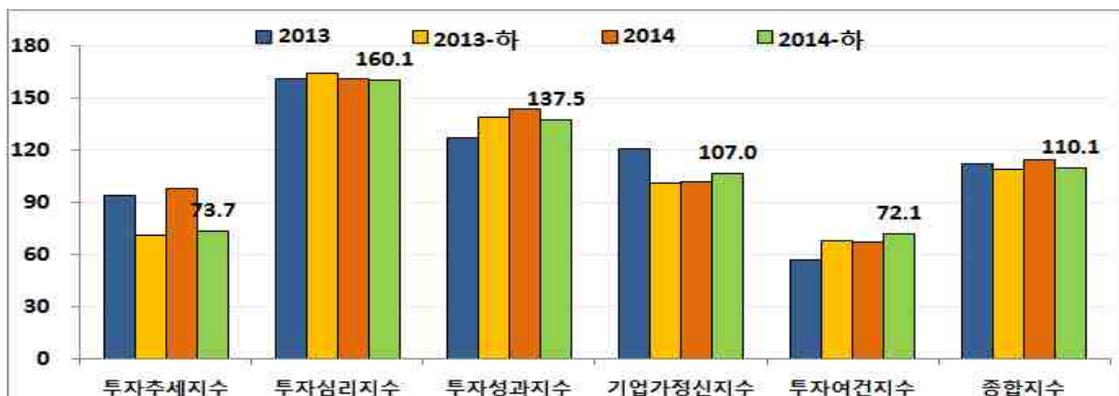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.

### 3. 기업투자지수 평가

○ 국내 주요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2014년 상반기 대비 하락하였고, 투자실적을 나타내는 추세지수도 크게 하락하였음. 투자 의욕을 나타내는 심리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침

- **종합지수 하락** : 국내 주요 기업들의 투자 종합지수는 110.1으로 하락. 국내 100대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표가 2014년 하반기 수치가 올해 상반기 대비 하락
- **지수별 평가** : 2014년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기업가 정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투자 여건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확대에 나서기 힘든 상황
- **투자 실적 하락** : 투자추세지수는 2014년 하반기 73.7로 6개월 전 98.4 대비 24.7p 하락. 2014년 상반기 투자는 2013년 상반기 보다 줄었고,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 규모는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**투자 심리 양호** : 투자심리지수는 160.1로 6개월 전 161.0 대비 소폭 하락.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욕이 강하고, 경기 부진에도 투자 지속에 대한 의지도 높은 수준
- **투자 대비 성과 미흡** : 성과지수도 137.5로 6개월 전 143.3 대비 6.0p 하락 상반기 투자대비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나, 향후에도 투자대비 성과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
- **기업가정신 상승** : 기업가정신은 107.0으로 6개월 전 101.7 대비 5.3p 상승.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욕은 높으나, 리스크가 클 경우 투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
- **투자 여건 개선** : 투자 여건을 나타내는 지수는 72.1로 6개월 전 66.9보다 개선되었지만 다른 지수에 비해 저조한 상황.

< 기업투자지수 추이 >



주 : 1) 2013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2년 12월 10일~14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  
 2) 2013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6월 24~28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  
 3) 2014년 투자지수 조사는 2013년 12월 9~13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  
 4) 2014년 하반기 투자지수 조사는 2014년 6월 20~27일에 걸쳐 조사된 자료임.

#### 4. 시사점

- 설문조사 결과로 보면 기업들은 2014년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어,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투자 여건 개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  - 기업 투자가 위축될 경우, 국내 경제 회복력이 저하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등 세계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회복 지연 우려

##### 첫째,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도모

- 기업들은 2015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, 2014년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이 '내수 부양'과 '투자 활성화'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
-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
-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고,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
  -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'투자 확대 → 기업 수익성 향상 → 고용 확대 → 국민경제 활성화'로 이어지는 선순환 추진

##### 둘째,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

-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/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서 70% 이상의 기업이 1,000원 수준 이상으로 응답. 상반기 원/달러 평균 환율 수준인 1,050원 이상으로 응답한 기업도 38%를 차지
- 기업들의 엔저 지속 등 환율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미세 조정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도한 엔저 지속에 대하여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

##### 셋째, 경기회복에 대응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R&D 투자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추진

- 미국 등 세계 경기의 회복에 대응하여 설비투자를 확대하고,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
- 적극적인 R&D 투자와 신사업 투자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발굴, 육성해야 함
- 또한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R&D 지원을 확대하고, 일본과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

임희정 연구위원 (2072-6218, limhj9@hri.co.kr)  
홍유림 연구위원 (2072-6243, ylhong@hri.co.kr)  
김천구 선임연구원 (2072-6211, ck1009@hri.co.kr)

## <참고자료> 기업투자지수 산출 방법

### ○ 기업투자지수의 정의와 구성

- (정의) 기업투자지수란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환경, 투자여지, 투자성과 등에 대한 기업의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지수화 하여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정의됨
- (목적)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투자에 대한 자기평가와 투자심리 상태를 측정하여 관련된 정치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

### ○ 기업투자지수 계산 방법

#### - 투자지수 계산 방법

- 개별 투자지수 = '그렇다' 응답 비중 - '그렇지 않다' 응답 비중 + 100
- 예: '그렇다'가 60% 이고 '그렇지 않다'가 40% 이면  $60 - 40 = 20$ 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
- 개별 투자 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, 중간값 100점임

### ○ 조사의 개요

- 조사 기간 : 2014년 6월 20일 ~ 2014년 6월 27일(6일간)
- 조사 주최 : 현대경제연구원, 서울경제신문공동 주최
- 조사 대상 : 매출액 기준 국내 10개 업종 100대 기업
- 조사 내용 : 하반기 경기 판단, 경영전망, 투자지수 관련 내용
- 응답 기업 : 71개 기업 (응답률 71%)

### ○ 기업투자지수의 설문문항

| 구분          | 질문  | 답변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
| 투자추세<br>지수  |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투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증가된 규모입니까?<br>올해 하반기에는 올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증가시킬 예정입니까?        | (1)그렇다       |
| 투자여건<br>지수  | 현재 투자 여건에 만족하십니까?<br>향후 투자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 |              |
| 투자심리<br>지수  | 현재의 투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?<br>경기가 나빠지더라도 투자는 지속하시겠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2)그렇지<br>않다 |
| 투자성과<br>지수  | 상반기 투자 대비 성과는 좋았다고 판단하십니까?<br>향후에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기업가<br>정신지수 | 지금은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발굴하고<br>추진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?<br>수익이 기대된다면 아무리 투자 리스크가 크더라도 투자하시겠습니까? |              |